

연중 제16주일

제1독서 : 예레 23, 1-6

제2독서 : 에페 2, 13-18

복음 : 마르 6, 30-34

숲 정 이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평화가입니다.”
(에페 2, 14a)

강론

떠나고 싶다!

권이복 신부/순창 천주교회

“신부님! 세상 살고 싶지가 않네요!”

“무슨 일이 있어요?”

“아 글썄! 죽도록 농사져 가르쳐 장가 보냈더니 이제 와서 아버지가 저한테 해준 것이 무엇이나고 대드니, 원통하고 분해서 살 수가 있어야죠!” 하시며 하늘만 쳐다 보시는 눈가엔 어느덧 이슬이 맺혀 있다. 그럴 것이다. 나 너 사랑하고 저 나 사랑하는 재미로 살아왔건만, 그게 다 ‘허사 였다’ 싶은 느낌이야 얼마나 황량하라! 나머지 서글퍼졌다.

‘나는 죽어야 혀! 나는 죽어야 혀!’ 하며 울부짖는 교우가 있었다.

“왜 그러...!”

“나는 지 하나만 믿고 살았는데 지는 나 알기를 발바닥 때만큼도 못하게 여기니 내가 무슨 재미로 어떻게 살아유...! 신부님! 난 이제 죽어야 해유...!” 하며 호느낀다. 그러기도 하겠다. 처자식 위해 그 술한 아픔들을 다하고 살아 왔는데 상대는 이미 자신을 떠나 딴 살림을 차릴 준비를 채곡채곡하고 있었으니, 그 판국에 살아야 할 무슨 힘이 있겠는가!

사랑하는 ‘님’ 없이 사랑해 주는 ‘님’ 없이 이 힘든 세상을 어찌 살아갈까! 결국 우리에게 삶의 터전은 사랑하는 ‘님’과의 교감이다. ‘님’의 사랑이 가슴을 메울 때 난 더이상 바랄나위 없는 행복에 젖어, 살고 있음에 감사와 찬미를 드린다. 그러나 어느 때 내 사랑하는 ‘님’이 멀어져 갈 때 더이상 버티나갈 힘을 잃고 만다. 결국 ‘님’은 나의 전부요 나의 운명이다. 나는 그의 ‘님’이 되고 그는 나의 ‘님’이 되어 함께 살아가는 삶! 이 말고 그 무엇을 바라리요! 그래서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오직 그 ‘님’과만 같이 있고 싶다. 그 무엇에 의해서도 방해받고 싶지 않는 ‘님’과 ‘나’만의 만남! 이것이 나의 소망이요 꿈이다. 그러나 나는 오늘도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쉬지 않고 일하고 뛰어야 한다. 하여 ‘님’은 내 삶 저 귀퉁이에 밀려기를 피지 못하시니 어느덧 내 어깨는 늘어지기 시작한다.

‘아! 님이여 이 몸을 용서하소서.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일거리가 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몸! 오직 당신 ‘사랑’으로만 살게 하소서!’ 정말이지 모든 것 떠나 오직 ‘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

소리

김일성은 민족사의 죄인

김일성 사망 얘기로 일주일을 보냈다.

86년 11월16일 사망설이 나돌 때 우리 국민들은 ‘진작 죽어야 할 민족사의 죄인’이라며 그의 죽음을 기뻐했다.

그러나 이번엔 좀 양상이 달랐다.

남북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있어서인지 성급한 기대와 환상이 뒤엉켜 ‘잘 죽었다’는 표현은 사라졌다.

괴수였던 김일성이 주석이라는 칭호까지 곁들여 방송되고 보도됐다.


한국동란을 일으켜 동족 3백여 만명의 목숨을 앗은 전쟁의 원흉이요, 공산중주국의 몰락으로 냉전시대가 끝나는 마당에도 49년이라는 끈덕진 장기집권과 핵카드 구사로 평화무드를 휘방한 장본인이다. 거기다 지구상에서 마지막 교조적 세습 공산정권 존속으로 유일한 분단국이라는 오명을 남긴 자다.

82세의 절대자 김일성, 그도 반세기가량 다져 놓은 김일성 왕조에 종말을 맞았다.

주체사상에 조종이 울리고 신격체가 해체되어 오늘로써 지상에서 영원히 지하로 사라졌다. 한반도의 절반 한쪽에서 절대적인 권위로 군림하면서 우리 민족의 운명을 뒤흔들었던 악마였음은 그 누구도 부인 못한다.

그러나 그는 죽음을 예견이라도 한 양 남북 정상회담과 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3단계 회담의 재개 등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유화적 몸짓을 했기에 그의 죽음은 아쉬움이라도 남겼다.

이제 감상은 금물이다.

북한의 움직임을 예상해 그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뿐이다. 한시대의 종언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숲정이 산책



어서 이 땅을 떠나 네 고향으로 돌아가거라(창세 31, 1~21)

야곱이 라반을 떠나게 되는 이유는 세 가지로 제시된다. “저 녀석이 우리 아버지의 것을 다 빼돌려 부자가 되었다”는 라반 아들들의 고발, “라반이 자기를 보는 눈이 전 같지 않다”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야곱에 대한 라반의 달라진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할아버지 때부터 살던 네 고향 친척에게로 돌아가거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야곱은 이런 상황에서 자기 부인 레아와 라헬을 불러 장인의 집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문제를 상의한다. 두 여인은 자매지간이면서도 한 집안에서 남편의 사랑과 안방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일으켰던 장본인들이었다. 야곱이 부인들에게 설명한 떠나야 할 이유는 세 가지이다. 그것은 첫째, 라반의 변화된 태도, 둘째, 야곱의 성실한 노동에 대한 라반의 불공정한 대우,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앞 과의 이야기는 보다 세속적인데 비해 이 과의 이야기는 엘로히스트의 사상이 그 토대를 이루어 보다 종교적이다. 야곱이 검은 양과 줄무늬 염소를 많이 얻게 되는 과정을 묘사하는데 있어서 앞 과의 이야기에서는 라반이 비정상적인 색깔의 양과 염소들을 온전히 빼돌리고 난 후 야곱이 정상적인 가운데서 흰줄무늬가 있는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검은 양과 줄무늬 염소들을 출산해 냈다고 되어 있다. 말하자면 야곱의 양떼가 불어나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역할보다 야곱의 지혜가 강조되고 있다는 말이다.

이와 반면 이 과의 이야기에서는 라반이 가끔 야곱을 속이고 그에게 돌아갈 몫을 때먹는 수가 있긴 하지만 품삯을 지불한다. 때로는 점박이 양이, 때로는 줄무늬 있는 양이 품삯으로 주어지는데 그 양들에게서 태어난 새끼들이 모두 하나님의 중재로 어미를 닮아 비정상적인 색깔을 갖게 되어 야곱의 차지가 되었다는 것이다. 야곱은 여기서 아무런 비법을 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라반의 가족을 거두어 그에게 주셨다. 염소에 관한 이야기는 야곱의 꿈에 등장한다. 점박이 염소, 줄무늬 염소만이 교미를 하여 야곱에게 새끼를 낳아 준다. 그러나 여기서는 검은 양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

꿈에 야곱에게 나타난 천사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초월적 권위를 손상시키지 않으려고 애둘러 표현한 것이다. “어서 이 땅을 떠나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면서 야곱이 말을 마치자



야곱이 가족과 재산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

그의 아내들은 야곱 편에 서서 하나님의 분부대로 하시라고 야곱의 결정에 따를 것을 약속한다. 그녀들은 아버지의 부당한 대우와 비리를 고발한다. 아버지는 자신들에게 물려 줄 어떤 유산도 남겨 두지 않았고 자신들을 이방인처럼 취급했다는 것이다. “아버지는 우리를 팔아 먹었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돌려 주셔야 할 돈도 혼자 가로채신 거예요”라는 그녀들의 고발은 라반과 야곱 사이에 맺었던 결혼계약을 상기시켜 준다. 그녀들의 아버지는 빈털털이 야곱에게 딸들을 시집보내면서 신랑 쪽으로부터 14년간 노동을 약속받았지만 자신의 편에서는 아무것도 신부의 지참금으로 내놓지 않았으니 딸들을 신랑에게 팔아넘긴 셈이다. 그래서 그녀들은 “하나님께서서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아 주신 재산은 우리 것이요, 우리 자식들의 것입니다”하고 당연히 주장하게 된 것이다. 두 아내의 동의를 얻어 낸 야곱은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에 도망을 친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재산을 늘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과 충직한 종들을 거느리면서 안정된 지위를 확보했지만, 하나님의 떠나라는 명령에 즉시 복종하여 고향을 향해 떠난다. 또다시 순례길에 들어선 것이다. 아무런 미련없이 고달픈 순례길에 접어든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즉시 동행해 주신다.

주방요리구 전문점
비 전 사
카이젤 인덕션렌지, 카터기,
테크노세라믹, 녹즙기, 마마께주부
최 학 만(바오로)
송 계 순(소화 데레사)
☎ (0652)254-7928~9
FAX (0652)254-2931

장애인과 함께 삶의 기쁨을
마 일 생 수
최신시설로 지하 157m에서
채취하고 있는 천연 알칼리수
작은 예수회
☎ (0652)225-4678
호출기 015-682-4678

서울방사선과 의원
(종합건강진단센터)
종합검진, 유방촬영
특수촬영, 병리검사
박 인 숙(아나다시아)
금암분수대 로타리
☎ 78-1313

리틀한즈
· 원목가구 주문 제작
· DIY 나무모아 전문점
류 수(에밀리오)
김 경 숙(아기 막달레나)
효자동 파출소앞
☎ (0652)223-6422

교리상식④

성 안드레아 김대건 ②

김대건 신부와 순교정신

“나는 생명을 원하고 또 정의를 바란다. 그러나 만일 양자를 함께 가질 수가 없다면 생명을 버리고 정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중국의 현인 맹자의 말이다.

신앙에는 중립이 없다. 믿느냐 안 믿느냐 양자 택일뿐이다. 의와 생명은 똑같이 중하지만 치명자는 의를 택한 분들이다. 그들은 인생이 공수래 공수거(空手來空手去)라 생각하지 않았다. 현세에서 적당히 행복을 누리고 천국이 있다면 가졌다는 미지근하고 공리적인 사람은 순교는 그만두고 아직도 “기만적인 원욕에 따르는 묵은 사람”(에페 4,22)에 불과하다.

25세의 꽃다운 청년, 인간 김대건도 생명과 영예와 부귀의 욕망은 있었으리라. 그러나 그는 더 큰 목적을 위하여 버릴 줄 알았다. 진리를 깨닫기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진리를 위해 생명을 바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안다는 것과 실천과의 차이는 배반자와 진복자의 차이가 될 수도 있다. 김대건 신부가 학식과 교양을 겸비한 대 인물이라서 또는 6개국 말을 하는 탁월한 사교가란 점에서 존경의 대상은 아니다. 우리는 먼저 인간적인 면에서 김 신부가 철저한 자기 소신의 관철자였다는 점에서 경의를 표한다. 다음에 신앙인으로서 하느님의 명을 따르고 믿음을 위해 생명을 바쳤다는 순교정신 때문에 우리는 공경을 드린다. 죽기 직전까지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의 모습을 보자.

“여러분은 죽는 순간에 다다른 내 말을 들으시오, 지금 내게는 영원한 생명이 곧 시작되려 하오. 여러분도 사후에 행복한 자가 되려거든 천주교를 믿으시오.” 이 말씀을 끝으로 김 신부는 형장으로 끌려 나갔다.

교구 소식

1. '95년도 사목계획 준비모임 : 7월18일~19일 가톨릭센터
2. 교구청 회계 감사 : 7월20일~22일 가톨릭센터
3. 예비 신학생 하계 연수 : 7월23일~25일 나바위 피정의 집(7월 모임은 쉽니다)
※ 모든 예비 신학생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4. 전주 선택 주말피정 : 8월12일~13일 천호 피정의 집, 회비-45,000원
접수-가톨릭센터 교육국(☎ 85-0041)
5. 하나회 미사 및 월례모임 : 7월24일(일) 오후2시 가톨릭센터 3층
6. 로사리오회 성모신심세미나 : 7월23일~24일 어은동 공소
7. 교도소사목후원회 월례미사 : 7월18일(월) 오전10시30분 가톨릭센터 3층
8. 종교음악 연구회 정기교육 : 7월18일(월) 오후1시 가톨릭센터 4층
9. 제1회 가톨릭신문 주최 독후감 공모 : 원고마감-9월15일(200자 원고지 10매 내외)
대상-전신자, 문의-전주지사(☎ 232-0268)

- 성소모임 인보성체수도회 : 7월24일 오후1시30분 본원 (0652)84-3231
- 가리따스수녀회 : 7월24일 오후2시 신동 성당 수녀원 (0653)54-2636
- 프란치스코회 : 7월24일 오전11시 광주 삼호가든(A) (062)522-4945~6
- 한국외방선교회 : 7월24일 오후2시 광주가톨릭센터 606호 (062)27-7126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가정에서의 환경보호(2)

화학세제에 들어있는 인산염 등은 산소공급을 차단시켜 물을 썩게 만드므로 설거지를 할 때 밀가루나 쌀뜨물을 이용합니다.

은인을 찾습니다

성당신축에 따른 성물 및 비품준비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작은 정성도 큰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전주교구 고산성당 100주년 기념사업 ☎ (0652)71-4171(FAX접수)

예수의 꽃동네 형제회·자매회

성소자 하계 수련대회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 · 일시: 8월6일~8일 오후 1시 · 장소: 가평 꽃동네 · 참가비: 10,000원 · 문의: (0446)78-9810~12 (0356)85-3011.(02)272-0101

예수의 꽃동네 형제회·자매회

성소자 하계 수련대회 <국민학생, 중학생> · 일시: 8월14일~15일 오후 1시 · 장소: 음성 꽃동네 본원 · 참가비: 5,000원 · 문의: (0446)78-9810~12 (0356)85-3011.(02)272-0101

요심이 (1090) 김병오



천호 피정의 집 총무직을 맡을 간부직원 구함

1. 자격: ①영세한 지 5년이 경과되고 병역을 필한 남자(연령제한없음) ②윤전민허증 소지자
2. 학력: 전문대이상 졸업자
3. 제출서류: ①지원서(소정양식)-교구청 사무처에서 배부 ②세례증명서 ③본당신부 추천서 ④윤전민허증 사본 ⑤주민등록등본 각1통
4. 제출처: 전주교구청 사무처(☎85-0041)
5. 서류접수마감: 1994. 7.25(월)
6. 기타: 선발자는 개별통보함.

가르멜 남자 수도회 성소자 피정

- 일시: 7월30일~8월1일
- 장소: 인천 남자 가르멜수도원
- 대상: 고등학교 재학생, 대학생, 일반
- 문의: (032) 542-2625 성소담당신부

진선미 꽃집

각종 생화
신부 부케 전문

미지트 원목가구

중앙동 대리점
이명자(마리아)
범덕배(디또)

전주백화점 옆
☎ 진선미 84-2628
미지트 84-8725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사제관 82-9663 사무실 82-9661 주임신부 박진량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김동주

◎ 연중 제16주일

1. **축! 세례명 축일**: 20일 이성임 마르타 수녀님
많은 기도바랍니다.
 2. **초등부 여름 신앙학교**
교리: 7월23일~26일, 물놀이: 27일~28일(장소-진안 덕안
분교) 회비-5,000원. 신청-초등부 교리교사회
 3. **중·고 여름 신앙학교**
교리: 7월24일~27일, 산간학교: 28일~29일(장소-진안 덕
안분교) 회비-10,000원, 신청: 중·고 교리교사회
 4. **신앙학교 준비를 위한 찬조금 접수**: 사무실
구역별, 단체, 개인별로 협조해 주실 분 사무실에 접수바랍니다.
 5. **다음주일(24일)은 신앙학교 준비를 위한 2차헌금 있음.**
 6. **모임**: ①대건회(오늘 장엄미사 후)
②여성연합회(19일 어머니미사 후)
③꾸리아(24일)
· 천사의 모후-장엄미사 후
· 자비의 모후-후 2시
 7. **금주 청소**: 인후10, 11반
차주 청소: 동진1, 2반
- 지난주 봉헌금: 1,009,330원 교무금: 886,000원

*** 복자**

주임신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정승현
보좌신부 86-3032 수녀원 86-3454 보좌신부 김삼호
사목회장 황길평

1. **성우회 단합대회**: 오늘
 2. **부녀회**: 21일(목) 오전 10시
 3. **빈첸시오회**: 23일(토) 오전 10시
 4. **초등부 여름 신앙학교**: 7월21~24일(캠프23~24일)
 5. **초등부 여름 캠프**: 23~24일(1박2일)
장소-진안 용평국민학교, 회비-5,000원
대상-초등부 전학년, 신청-초등부 교리교사회
 6. **중·고학생 여름 캠프**: 7월22~25일(3박4일)
장소-진안 8평국민학교, 회비-7,000원
대상-중·고학생, 신청-중·고등부 교리교사회
 7. **미사 안내**: 23일(토) 오후 4시 어린이미사, 24일(일) 오전 9시
학생미사가 초·중·고 여름 캠프 관계로 미사가 없습니다.
 8. **성당 청소**: 23일(토) 의덕의 기술Pr, 다윗의 담Pr
 9. **금주 전례**: 해설-최옥남, 독서-신대섭 부부
봉헌-전호중 가족
 10. **차주 전례**: 해설-황만규, 독서-유단수 부부
봉헌-김병화 가족
- 지난주 봉헌금: 616,650원 교무금: 1,209,000원
 감사헌금: 160,000원

*** 상 관**

사제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한봉섭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 양주태

1. **성모회 성지순례**: 20일(수) 오전 8시, 연풍성지
 2. **초등부 여름 신앙학교**: 23일(토)~27일(수)까지
회비-5천원, 신청-초등부 교리교사회
 3. **중·고생 신앙학교**: 25일(월)~27일(수)까지, 회비-8천원
장소-충남 비인 춘광대 해수유장, 신청-중·고 교리교사회
 4. **초·중·고생 여름 신앙학교를 위해 도움을 청합니다.**
단체, 개인별로 협조해 주실 분 사무실에 접수바랍니다.
 5. **여름 신앙학교를 위해 도움주신 분**: 박귀철, 오철규, 김영선, 강
재익-각 3만원, 원색장 신자일동-2만7천, 오옥녀, 백남애, 이
준희, 김만순, 이기봉-각 1만원, 신부님-20만원, 계-39만7천
원, 6. **금주 청소**: 성실하신 동경너Pr
 7. **차주 청소**: 천주의 모친Pr
 8. **금주 전례**: 해설-김미남, 독서①박귀철 ②이순자
봉헌-김중화씨 부부
차주 전례: 해설-우경숙, 독서①한동욱 ②이석남
봉헌-이명수씨 부부
- ※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상징
메시아(Messiah): 이스라엘 말 구세주라는 뜻이다. 어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다. 유대인들은 하느님이 임금이나 대제관으로
뽑으신 자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직책을 수여했었다. 희랍어로는
'그리스도'이다.
- 지난주 봉헌금: 384,300원 교무금: 421,0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종원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민병부

◎ 연중 제16주일!

1. **성모회**: 7월17일(오늘) 공식미사 후
 2. **초등부 주일학교 여름 신앙학교**
①교리: 7월23일(토)~7월24일(일) 오전 9시~오후 4시30분
②물놀이: 7월25일(월) 오전 9시~오후 4시30분
③3일동안: 점심도시락은 각자 준비해 주세요.
 3. **중·고 여름 수련회**: ①데-7월24일(일)~7월26일(화)
②장소-고당수련원
③대상-중·고등부학생
④참가비-8천원
 4. **성전 보수헌금 신입하신 분(지난주)**: 진행집(율리아), 려병현
(마테오) 2명-각 10만원, 배인순(마리아), 김정희(막달레나)
2명-각 5만원, 이옥숙(마리아), 김경수(수산나), 이삼래(에비
자), 최남순(레지나) 4명-각 3만원, 7월10일 현재 3백1세대 신
입
※ 공사가 다 되어가니 아직 납부 못한 분 납부바라며 미신입하신
분 신임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1,116,250원 교무금: 1,068,000원

*** 전 동**

주임신부 81-0098 사무실 84-3222 주임신부 김봉희
보좌신부 82-7245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이원재
F A X 82-6232 유치원 84-8347 사목회장 이명행

◎ 연중 제16주일

1. **금주**: 바나의 성모Cu(후 2시)
 2. **성화회**: 18일(월) 오후 6시
 3. **성모회 피정**: 19일(화) 치명자산
 4. **중·고등부 여름 산간학교**: 22일~24일, 장소-임실 오수 해
곡마을
 5. **성지회**: 22일(금) 오후 8시
 6. **차주**: ①교부금 납부주일
②성마리아 Co(후 2시)
 7. **초등부 주일학교 여름 신앙학교**
25일~29일, 물놀이-29일(해곡천) 캠프-28~29일(본당)
 8. **고정 전례 안내**
①성체강복 및 조배(매월 첫 목요일 오전 10시)
②병자 봉성체(매월 첫 금요일 오후 2시)
③고백성사(평일미사 후)
④유아세례(홀수달 둘째 토요일 오후 3시)
⑤차량 축복식(홀수달 마지막주일 공식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1,882,23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수녀원 87-0229 주임신부 이재후
사무실 83-8245 F A X 82-6686 사목회장 강상근

◎ 청소년 신앙학교 및 수련회를 위한 2차헌금 감사합니다.

1. **중·고 여름 수련회**: 21~23 나바위 성지에서
 2. **중·고 신앙학교**: 25~27일 후 3시~6시, 회비: 10,000원
 3. **어린이 여름 신앙학교**: 25일~29일 매일 8시20분 5,000원
 4. **어린이 여름 수련회**: 31~8월1일 나바위, 회비-3학년부부터 3,
000원, 적학년(2학년이하) 2,000원
 5. **청소년 여름 신앙학교를 위한 찬조금**: 사무실에 접수
 6. **성모회 야외 경로잔치**: 19일 동상 수만리 9시 출발
 7. **건축위원 회의**: 22일 저녁 8시 사제관
 8. **교도사서목후원회 월례미사**: 18일 전 10시30분 샌타
 9. **교도사 방학미사**: 20일 후 1시30분 후원 회원 함께
 10. **M.E 20차 정진우(비오르) 임용상(베드로) 추모미사**: 18일 저
녁 8시 평화동 M.E 가족들의 기도바랍니다.
 11. **가톨릭 학생 성가집 판매**: 2,500원 부모님들께서 구입바람.
 12. **회의**: 임바누엘-오늘 공식미사 후, 청년회-오늘 저녁미사 후,
성모회-20일 어머니미사 후, 성소후원회-오늘 공식미
사 후, 평화회(사회)-21일 저녁 8시, 율트레아-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 ※ 전일 교우 환영합니다.
김일수(안드레아) 차예자(첼미)가족 88-8360 10-6반
정정분(사도요한) 정영민(율리안나)가족 221-3641 14-5반
- 지난주 봉헌금: 1,045,860원 교무금: 1,035,000원

성서교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오후 8시 전동 교육관, 마태오 복음 강의